

# 중학생의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연구

문희\*, 강희순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Hee Moon\*, Hee-Sun K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광역시 1개 중학교와 S시 1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200명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처벌적이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방임적일수록 학교폭력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의 공격성을 관리하고 부모와 교사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중학생, 학교폭력, 태도, 사회생태학적 요인, 부모, 교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o-ec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ttitude o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100 students in J metropolitan city and 100 students in S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4.0 program. Factors affecting an attitude of school violence were the level of aggressiveness of student, parenting attitude, and teachers' attitude to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chool violence. For this purpos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manage the aggressiv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have a proper awareness of the students' school violence attitude in connection with parents and teacher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 School Violence, Socio-Ecological Factor, Parent, Teache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문제로 유네스코의 보고서에 의하면 246만명의 미성년자들이 학교폭

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조사결과에서는 학교와 사회의 꾸준한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계속 제고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학

\*This paper was supported by(in part)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Hee Moon(scumoon@scnu.ac.kr)

Received September 4,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26,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4년 19,521건에서 2016년 26,973건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2].

학교폭력은 청소년에게 불안, 공포,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등교거부나 학업성적 저하 등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며 대인공포증 등으로 향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3].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 파악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폭력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생태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4]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중요한 이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사회적 요인, 경제상태,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 수준, 교사의 태도, 학교 주변 환경 등 매우 복잡하며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는 내적, 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많은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5]. 즉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어느 한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6].

따라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체계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체계로부터 상위체계로 이르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7]. WHO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을 위하여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의 중심 개념은 개인의 발달은 사회적 환경-가족, 동료, 학교, 지역사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은 주변의 광범위한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8]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개인 수준부터 사회적 수준까지 단계를 제시하면서 각 단계별 폭력의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에서 개인 수준은 생물학적, 개인적, 경험 요인들로 성별, 교육정도, 수입, 약물남용 등이 포함되며 관계 수준은 폭력경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밀접한 관련 요인들로 개인과 밀접한 사회적 연결고리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파트너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수준은 사회적 관계가 발생하는 학교, 직장, 이웃과 같은 노출된 환경이 포함되며 사회적 수준은 건강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같은 요인들로 폭력이

권장되거나 억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개인의 발달적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학교폭력의 위험성 및 예방요인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9].

또한 2017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1.2%에 이르고 있고 이중 학교폭력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 이는 학교폭력의 경우 중재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강화시키는 역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0].

Crapanzano[11]는 학교 환경에서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은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충동적이며 대부분의 행동은 심리적 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Andreou 등[12]과 Sahin[13]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폭력의 발생 사이에 관계가 있으며 Stevens 등[14]과 Salmivalli 등[15]은 이러한 태도는 폭력 발생에 대한 예측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폭력적인 행동과 태도간의 관계는 그들이 행동하는 동안 심리적인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6] 청소년의 폭력적인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습관적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집은 광역시 소재 중학교 1개교와 시 소재 중학교 1개교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추출은 Cohen의 표본수 계산프로그램인 G\*Power 3.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필요한 대상자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alpha=.05$ , 검정력  $1-\beta=.80$ 일 때 131명이었으며 지역의 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각 100명으로 총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변수로는 지역, 성별, 학년, 성적, 부모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으로 하였다.

### 2.2.2 개인수준

개인수준에 관한 변수로는 공격성과 자아탄력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공격성의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Kim[17]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찬성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자아탄력성은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18]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Adolescent Resilience Scale)를 Jeong[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2.3 관계수준

관계수준에 관한 변수로는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를 조사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은 Kim[20]의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부모로부터의 언어적 폭력 4문항과 신체적 폭력 9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부터 ‘거의 매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Cho와 Hwang[21]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의 드물게’ 1점부터 ‘대부분’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Cho와 Hwang[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2.2.4 지역사회수준

지역사회수준에 관한 변수로는 학교생활만족도와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가의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Kim[17]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처벌적이고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방임적임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2.2.5 사회적 수준

사회적 수준에 관한 변수로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대중매체 폭력 접촉 정도를 조사하였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Kim[17]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학교주변에 유흥시설과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부터 ‘매우 많이 있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대중매체 폭력 접촉 정도는 Kim[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인터넷,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접촉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매체를 접촉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2.2.6 학교폭력태도

학교폭력태도는 Jang[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하는

방관적 태도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하는 태도가 방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않은 것을 의미한다. Jang[22]의 도구에서 Cronbach’s  $\alpha$  =.6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2.3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설문조사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이 담긴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0월 4일부터 28일까지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유의수준  $p < .05$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106명으로 53.0%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94명으로 47.0%이었다. 학년은 1학년 68명(34.0%), 2학년 63명(34.0), 3학년 69명(34.5%)이었으며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학교 성적은 52.5%인 105명이 중위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5명(37.5%)은 하위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50명(75%)으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족은 30명(15.0%), 기타는 20명(10.0%)순이었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는데 아버지의 경우 127명인 63.5%, 어머니의 경우는 129명(64.5%)

이었다. 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이 143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상 50명(25.0%), 하 7명(3.5%)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rea	J city	100(50)
	S city	100(50)
Sex	Male	106(53.0)
	Female	94(47.0)
Grade	1	68(34.0)
	2	63(31.5)
	3	69(34.5)
School record	High	20(10.0)
	Middle	105(52.5)
	Low	75(37.5)
Type of family	Nuclear	150(75.0)
	Extended	30(15.0)
	Other	20(10.0)
Education -father	Middle school	60(30.0)
	High school	127(63.5)
	University	13(6.5)
Education -mother	Middle school	60(30.0)
	High school	129(64.5)
	University	11(5.5)
Economic level	High	50(25.0)
	Middle	143(71.5)
	Low	7(3.5)

###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공격성 수준은 4점 만점에 1.76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3.55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은 5점 만점에 1.4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만점에 3.08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4점 만점에 1.85 점으로 중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5점 만점에 2.26점으로 중간 수준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수준은 5점 만점에 1.9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상자의 대증매체 폭력 접촉 정도는 5점 만점에 2.31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학교폭력태도 수준은 5점 만점에 2.32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variables (N=200)

Variables	Mean±SD	Range
Aggression	1.76±.47	1-4
Resilience	3.55±.64	1-5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1.48±.69	1-5
Parenting attitude	3.08±.44	1-4
Satisfaction of school life	1.85±.70	1-4
Teachers' attitude of violence	2.26±.74	1-5
Harmful environment	1.96±.86	1-5
Harmful mass media	2.31±.95	1-5
Attitude of school violence	2.32±.59	1-4

### 3.3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1에서는 일반적 변수를 통제하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값은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Dubin-Watson 계수는 2.01로 나타나 잔차들간에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F값은 13.31(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1에서는 지역, 성별, 가족형태는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학년,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경제수준은 연속변수들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형 2에서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인 공격성, 자아탄력성,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만족도, 교사의 태도,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대중매체에의 폭력 접촉 등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는 지역( $\beta = -.17, p = 0.18$ )은 학교폭력태도에 부(-)의 영향을, 확대가족( $\beta = .18, p = 0.014$ )과 경제수준( $\beta = .20, p = .006$ )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 R<sup>2</sup> = .05로 설명력은 5.0%이었다. 모형 2에서는 공격성( $\beta = .43, p < .001$ ),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 $\beta = .13, p = .041$ )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beta = -.16, p = .032$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sup>2</sup>의 변화량은 .33으로 이들은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Effect of socio-ec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attitude (N=200)

	Model 1			Model 2		
	$\beta$	t	p	$\beta$	t	p
Constant	1.94	4.80	<.001	1.07	1.72	.047
Area(0:J city )	-.17	-2.48	.018	-.07	-1.21	.228
Sex(0:male)	.09	1.26	.209	.01	.11	.911
Grade	.06	.86	.389	.06	.97	.335
School record	-.06	-.77	.441	-.07	-1.22	.223
Extended family	.18	2.48	.014	.10	.06	.972
Othe type	.07	.95	.342	.04	.58	.563
Education-father	-.01	-.06	.950	.03	.42	.675
Education-mother	-.00	-.04	.968	.07	.96	.338
Economic level	.20	2.78	.006	.15	2.35	.020
Aggression				.43	6.62	<.001
Resilience				-.05	-.70	.485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01	-.07	.941
Parenting attitude				-.16	-2.16	.03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02	.30	.764
Teachers' attitude of violence				.13	2.06	.041
Harmful environment				.10	1.63	.106
Harmful mass media				.08	1.23	.220
R <sup>2</sup> (Adj R <sup>2</sup> )	.10(.05)			.43(.38)		
R <sup>2</sup> change	-			.33		
F	2.25			13.31		
P	.021			<.001		

##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공격성 수준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약간 높았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Roh[23]나 Kim[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 Park과 Goh[24]와 Kim[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처벌적이지 않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교주변의 환경은 좋은 편이며 대중매체에의 폭력 접촉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수준에서는 학생들의 공격성이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태도는 올바르게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학교폭력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Lee[25]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Chof[26]도 공격성은 또래 괴롭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공격성이 낮은 개인은 쉽게 폭력행동을 하지 않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더 자주 폭력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Lee와 Lee[2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격성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과 폭력태도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격성은 발달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의도성이 강한 공격성은 주로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27] 학교폭력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다[25]. 학교폭력은 폭력을 기초로 한 학습된 부정적인 태도로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공격성은 지속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10] 폭력의 상황에서 중재를 위해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역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관계수준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태도는 올바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f[26]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또래 괴롭힘의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Song 등[28]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전반적인 또래 관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에 대한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Son[29]의 연구에서 아동이 자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Lee와 Kim[30]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해결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역사회수준에서는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가 처벌적이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방임적일수록 학교폭력 태도는 올바르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교사의 지지 등의 영향을 받으며[31]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폭력에 대하여 수용적일수록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적절하였다[7]. Smith 등[32]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청소년의 태도는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폭력은 학생폭력의 중요한 예측요인이기 때문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다[8].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어느 한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며 [6, 10]. 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태도 변화는 학교폭력예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33]. 따라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의 공격성을 관리하고 부모 및 교사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생태학적 요인 중 학교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공격성, 부모의 양육방법, 폭력에 대한 교사의 태도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부모나 교사 등과도 연계하여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이들 영향 요인들을 포함시켜 학교폭력에 대한 중학생의 올바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중학생에게 확대시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UNESCO. (2016).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 UNESCO Publishing.
- [2] Ministry of Education. (2017). *Survey of school violence in 2017*.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3] J. Y. Kim, S. M. Seong, & J. B. Kim. (2015). A study on the depression, aggression, self-control and domestic violence of overlapping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mong adolescents. *School Social Welfare*, 31, 83-109.
- [4] H. Y. Kim. (2013). *Youth school violence*, Seoul: Hakjisa Publishing.
- [5] M. Constantinescu, & C. Constantinescu. (2013). Reduc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through the Program Making Choic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6, 219-225. DOI: 10.1016/j.sbspro.2013.04.102
- [6] E. S. Ban. (200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 [7] S. H. Han, & J. S. Baik, (2015). Effects of school system factors 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school violence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3(4), 11-22.
- [8] X. Oriol, R. Miranda, A. Amutio, H. C. Acosta, M. C. Mendoza, & J. T. Vallejos. (2017). Violent relationships at the social-ecological level: A multi-mediation model to predict adolescent victimization by peers, bullying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PLoS One*, 2(3), 1-18. DOI: 10.1371/journal.pone.0174139.
- [9] L. L. Dahlberg, & E. G. Krug. (2002). Violence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In: E. Krug, L. L. Dahlberg, J. A. Mercy, A. B. Zwi, R. Lozano eds(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1-56. DOI: 10.1590/s1413-81232006000200007
- [10] S. Becerra, F. Munoz, & E. Riquelme. (2015). School violence and school coexistence management: unresolved challeng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0, 156-163. DOI: 10.1016/j.sbspro.2015.05.030
- [11] A. N. Crapanzano, P. J. Frick, & A. M. Terranova. (2010). Patterns of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 school-based sample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433-445. DOI: 10.1007/s10802-009-9376-3
- [12] E. Andreou, E. Didaskalou, & A. Viachou. (2008). Outcomes of a curriculum-based anti-bullying intervention program on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13, 235-248. DOI: 10.1080/13632750802442110
- [13] M. Sahin. (2012).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iciency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preventing bullying in primary school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1325-1330. DOI: 10.1016/j.childyouth.2012.03.013
- [14] V. Stevens, P. Van Oost, & I. De Bourdeaudhuij. (2000). The effects of an anti-bullying intervention programme on peer's attitudes and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3, 21-34. DOI: 10.1006/jado.1999.0296
- [15] C. Salmivalli, A. Kaukainen, & M. Voeten. (2005). Anti-bullying intervention: Implementation and outcome.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465-487. DOI: 10.1348/000709905x26011
- [16] R. H. Fazio. (2007). Attitudes as objects-evaluation associations of varying strength. *Social Cognition*, 25, 603-637. DOI: 10.1521/soco.2007.25.5.603
- [17] M. Y. Kim.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chool violence: Focusing on girl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chungbuk provinc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18] O. Atsushi, N. Hitoshi, N. Shinji, & K. Motoyuki.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1), 57-65.
- [19] E. O. Jeong. (2006). *Validation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cal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20] O. S. Kim. (2008). *Family violence of parents on youth runaway impuls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21] H. I. Cho, & J. E. Hwa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learning of middle school-aged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27-52.
- [22] G. S. Jang. (2005).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using traditional games*. Doctora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23] I. H. Lee & N. S. Roh. (2017). Differences in aggression,

-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typed of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facilities environment*, 15(1), 25-35.
- [24] G. M. Park & J. H. Go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post traumatic stress: Role of forgivenes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1), 257-274.
- [25] S. M. Lee. (2014). An examination of model among extra-curricular sports participation degree and aggression and school violence attitudes in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0), 501-513.
- [26] Y. J. Cho. (2011).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5(1), 67-88.
- [27] E. H. Lee, & H. J. Lee. (2014). The effect of an empathy-ba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the empathy ability and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earch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education*, 1(2), 25-48.
- [28] G. H. Song, J. H. Song, J. H. Baik, & S. Y. Lee. (2009).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parents' parenting behavior and peer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2), 1-22.
- [29] Y. J. Son. (20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ccording to parents' parenting attitude*. Master's thesis, Kyungin University of Education
- [30] M. S. Lee, & H. J. Kim. (2013). A study of middle school parents' perceptions towards school violence.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117-138.
- [31] J. H. park, & H. J. Kim. (2015). A meta analysis of factors having effects on school violence-discovering the importance of school and community factor.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3(4), 115-128.
- [32] P. K. Smith, K. Ananiadou, & H. Cowie. (2003). Interventions to reduce school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8, 591-599.  
DOI: 10.1177/070674370304800905
- [33] B. J. Lee, Y. S. Kim, & J. I. Lim. (2009).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Based on logical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0(2), 257-281.

문 희(Hee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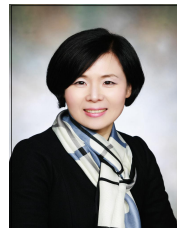
[정회원]



- 1995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5년 ~ 2016년 : 광양보건대학 교수
- 2016년 2월 ~ 현재 :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다문화 여성 건강, 여성암
- E-Mail : scumoon@scnu.ac.kr

강 희 순(Hee-Sun Kang)

[정회원]



- 2002년 2월 : 순천대학교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1년 5월 ~ 2014년 2월 : 순천대학교 간호주사
- 2014년 2월 ~ 현재 :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건강, 건강증진, 치매
- E-Mail : kanghs@scnu.ac.kr